

남기고 갈 이야기

장도영장군과 함께한 파란의 생애 [1]

육군대령 석장 권중은權重殷翁의 일대기



▲ 석장 권중은翁이 상당 부분 활자화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비화를 설파하고 있다

• 역사를 바꿀 뻔한 5·16 전야

당년 80세의 예비역 육군대령 석장石牆 권중은權重殷翁은 목소리가 도자기 항아리라도 깰 듯 찌렁찌렁하였다. 이야기도 중 자주 격양이 될 때는 소스라쳐 고성이 나오고, 양손팔을 써 정면을 찍어 가리키거나 수도로 허공을 치기도 하며 사자후獅子吼를 토하는 노인장老益壯을 보였다.

“그때 장도영張都英 총장께서 내 간청을 들었더라면 이 나라 역사는 크게 바뀌었지요. 5·16은 불발되고 지금의 대한민국 역사는 상상도 못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도대체 그때 장총장이 왜 내 말을 안들었는지 영원한 불가사의예요. 그게 국운이고 하늘의 뜻이었을까. 그러나 실인즉 장장군이 너무 순진하고 충실한 부하로서 상대를 그만큼 신임했던 탓이라고 할까요.”

51년 전, 1960년 5월 15일, 그 생애에서 가장 길고 긴박했던 날 석장 권중은翁은 29세의 육군소령으로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의 분신이나 다름 없는 전속부관이였다. 이날 밤

에 그는 장도영 총장을 모시고 매그루터 미8군 및 유엔군 사령관을 다섯 차례나 만나러 오갔다. 상황이 긴박하자 장총장은 용산 육군본부의 집무실을 비우고 서울시청 앞에 상공회의소와 경남극장이 있던 건물 지하의 506방첩부대에서 지휘하였다. 전속부관은 어떤 경우에도 총장 곁을 뜨는 일이 없었다. 평소에는 총장 공관에 당번병이 있어 잠은 자기 숙소에서 나와 자는데 비상시에는 야간에도 총장과 방을 달리하여 곁에서 잤다.

권중은 소령은, 군사쿠데타가 절대불가라 생각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군사반란은 대역이다. 이를 진압하는 데 무슨 유예와 숙고가 필요한가. 그는 사실 장도영 총장이 직전 대구에서 2군사령관으로 있을 때 박정희 소장이 부사령관이었으므로 사령관의 전속부관으로서 측근에서 두 장군을 같이 모신 처지였다. 그러나 장장군은 그가 1951년 임관 직후부터 줄곧 10년을 전속부관으로 모시어 왔고, 박소장에게는 자기가 신명을 바칠 의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권중은 소령은

틈을 보아가며 애타게 진언하였다.

“각하, 막아야 합니다. 무조건 막고 보셔야 합니다.”

이때는 군에서 모든 장군을 각하閣下로 호칭했다. 지금은 한강에 다리가 27개나 되지만 이때는 ‘인도교人道橋’라 부르던 제1한강교 하나가 있었다. 인도교 아래에 철교가 있으나 철교로는 쿠데타군이 트럭을 몰아 병력을 이동시키지도, 강두에 마련하는 방어선을 돌파하지도 못한다. 인도교만 봉쇄하면 쿠데타군은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한강을 건너지 못하면 육본과 서울을 장악할 수 없다.

“1개 중대 병력이면 됩니다. 한강교두에 지엠씨 20대만 갖다 앞세워 놓고 그 뒤에 모래포대로 쌓아 기관총대 설치하고 소총부대 1개중대 병력만 그 뒤에 배치해 놓으면 끝납니다. 저쪽에는 지금 장갑차나 탱크도 없이 트럭을 타고 들어옵니다. 트럭이 가까이 오면 공포탄을 쏘다가 실탄 사격을 가하면 우선 운전병이 저 살려고 차를 버리고 달아나고, 그러면 뒤따라 사병은 죄 튀고 장교만 남습니다. 장교들만 잡아놓고 진압하시면 각하는 영웅이 되십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영웅이 되십니다. 그저 명령 한 마디만 내리면 될 걸 왜 안하십니까?”

“글쎄……자네 말도 일리는 있네만 아군끼리 유혈은 안돼. 우리끼리 돌로 갈라져 내란을 벌이면 김일성이가 쳐들어온단 말이야.”

당시 상황으로 북한의 남침은, 우려는 안될 수 없지만 사실상 ‘기우杞憂’에 불과하였다는 게 석장翁의 생각이다. 당시 쿠데타군의 주체는 영등포의 6관구 사령부에 집결해 있었다. 관구사령부의 김재춘金在春 대령이 주체의 1인이고 사령관 서종철徐鍾喆 장군은 거사를 묵인하되 참모총장의 의사와 결단에 따를 인물이었다. 또한 그 쿠데타 주체의 지도자 박정희 소장이 전군에 걸쳐 많은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박소장의 배후에는 장총장이 있으며, 실은 장총장이 거사의 드러나지 않는 최고 지도자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수였다는 게 석장翁의 주장이다. 따라서 장총장이 일거에 사태를 진압하고 거사자들을 체포해 군사법정에 세우면 사태는 순식간에 가라앉고 만다. 내란이 일어나고 북한이 남침하고 할 겨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도영 총장은 신임하는 부하를 희생시킬만큼 비정한 인물이 아니었다. 거사군이 진압체포되면 그들에게는 극형 외에 달리 선택될 길이 없었다. 장총장의 가장 급박한 고뇌는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다. 미군사령관의 일종 작전명령은 거듭하여 ‘강경진압’이었다. 당시 전군에서 영어를 가장 잘한다던 장도영 총장에게는 통역이 물론 필요없었고 권중은 소령도 영어를 상당히 하는 편이었다. 하룻밤에 다섯 번째로 찾아갔을 때 미군사령관은 장총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럼 당신이 알아서 재량으로 처리하여 무사하게 하라 하였다. 용산 8군사령부에서 시청 앞 방첩부대로 돌아온 장도영 육군총장은 영등포 관구사령부의 박정희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까지 발생한 일을 일체 불문에 부치겠으니 모두 원대로 돌아가라’ 하였다.

영등포의 주체들은 생애의 마지막 술잔이 될지도 모를 서맹의 순배를 나누며 총장의 하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돌아가라는 총장의 명령에, 들어오라는 말을 기대했던 박소장은 낙담했다. 박소장으로서 지금까지 자기를 두 차례나 구해 주면서 지주가 되온 상관 장총장의 말을 차마 거스르기 어려웠다. 잠시 주저와 고뇌에 빠진 박소장에게 수하 주체들이 권총을 빼어 들고 외쳤다. ‘각하를 먼저 쏘고 저희 모두 죽겠습니다.’ 이에 박장군의 입에서 진군의 명이 떨어졌다.

쿠데타군이 한강 인도교에 이르렀을 때 그곳 초소에는 헌병 근무자 몇 명만이 있었다. 영문을 모르고 도강 진군을 제지하려던 헌병 근무자 2명이 사살되는 것으로 한강 방어선

을 돌파한 쿠데타군은 곧바로 육군본부를 점령하고 서울 시가로 진입해 방송국과 경찰관서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속속 장악했다. 그리고 ‘혁명공약’이 방송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면서 쿠데타군은 사실상 무혈혁명을 성공시킨 ‘혁명군’으로 돌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육군본부로 진입하던 혁명군은 총을 난사했다. 그리고 육본이 장악된 뒤에도 승리와 성공을 알리는 일종의 축포로서 소총을 허공에 발사했다. 이에 격분한 권중은 소령은 관할 헌병대장에게 전화하여 이를 제지시키게 하여 비로소 육본에서의 총성이 멎었다. 왜 대한민국 육군의 총본산인 육본에 대한민국 육군인 너희가 총을 쏘는가. 부패무능한 정부를 몰아낸다면 왜 육군의 전당에서 총질을 하는가. 이것이 권중은 소령의 분노였다.

• 유소년 시절

일제하이던 1932년 11월 20일, 음력으로로는 10월 2일 석장 권중은翁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13번지에서 태어났다. 안동권씨 추밀공파 정헌公正獻公(14세世 도침의정승 계림부원대군 왕후王煦)계 생육신生六臣 충숙공忠肅公 권절權節의 14대손으로 부친 석호錫鎬공과 모친 충주지씨忠州池氏사이의 2남1녀 중 차남이었다. 웅이 태어났을 무렵 양수리의 자연동명은 순수한 우리말로 ‘돌데미’라 했는데 ‘돌담’의 뜻이었다. 그래서 한자말로로는 ‘석장石牆’이라 하니 역시 같은 뜻이었다. 양수리는 일대에서 가장 큰 장이 서는 곳이며 인구도 상당히 많았다. 돌데미, 즉 석장이 네 개 마을로 나뉘는데 상석장이 80여 호, 중석장이 1백여 호, 동석장이 1백여 호, 서석장이 1백여 호



▲ 그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 선 권중은翁

담백한 맛의 명문
도봉산원조 10년전통

山두부집

대표 權五玄



도봉산대등산로입구
등산객눈길이팔리고
하산자에겐 참새방앗간!
100명 동시 예약 가능

서울 도봉구 도봉동 411-1
전화 02) 954-1183 · 1184
HP) 010-8003-6996